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께,

드디어 방글라데시 입니다!!

지난 여름 우여곡절 끝에 이곳을 떠난지
꼭 7 개월만입니다. 비지스비자를 신청한
저희로선 조금은 당황스러운 방문비자,
그것도 체류기간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자를 받은 후 3 개월은
머물수있기를 바라는 맘으로 돌아 왔는데
공항에서의 입국수속은 걱정과 달리 아주
순조로왔습니다. 방문목적을 물어볼 때
비지니스 미팅과 트레이닝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음에도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입국도장을 찍어주었으니깐요.

다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이주 노동자들이고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엄청 많은
짐을 가지고 오는터라 입국할 때도 짐을
엑스레이에 다시 통과시키는게
관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치과기구 대부분이 금속이라 조마조마
기도하는 맘으로 줄에 서있었는데 한
직원이 저희 여권을 살펴보고는 그냥
통과시켜주는겁니다! 아! 좋으신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돌아온 집은 여전히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집안 일을 도와주는
자매가 갖다 놓은 예쁜 꽃들이 저희를
반겨주었고



집 뒤의 논에선 벼가 파랗게 잘 자라고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소리 또한
여전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나 몬순이 시작되기 전의
건조한 날씨 덕분에 건물 안이나 그들은
또 얼마나 쾌적한지요! 드디어 우리 집에
왔구나! 참 행복했습니다.

돌아와서 며칠 뒤엔 일년에 두번 있는 저희 단체 컨퍼런스가 근처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난해는 두번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컨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언어로 바뀌어 버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동시에 방글라를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연결되었지요.



(코로나 상황으로 야외에서 드린 부활절 예배 모습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내국인들을 파트너로 허입하는 논의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방글데시 기독교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께 저희 단체의 정체성과 비전을 나누고 특별히 각자의 직업과 전문영역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도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로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과 사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의 일터가 곧 사역지임을,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여야 함을 도전한 귀한 시간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양 선교사가 주류이고 영어가 공통어로 사용되던 컨퍼런스에 저희 숫자의 반이 넘는 현지 분들이 참석하며 방글라어가

컨퍼런스에서 돌아와서 드디어 병원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10 개월 배운 방글라는 이곳을 떠나 있던 7 개월의 시간동안 무참히 사라져 버려서 결국 통역의 도움이 당분간 필요하겠지만 저희를 위로하려 모든 스태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입에 방글라가 다시 자리를 잡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맘으로 치과의 오프닝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겁니다.

여태껏의 경험으로 미루어 "두달안에만 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했는데 한달 안에 열 수 있다고 장담하는겁니다!^^



(일년 넘게 치과장비를 덮어 두었던 비닐을 드디어 걷어냈습니다!)

그럴수만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머무는 동안 현지의사와 어시스턴트를 훈련시켜서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치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경험이 없는 치과의사를 고용하려 했던 원래의 계획을 바꾸어 어느정도의 경험이 있는 의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2 년의 경험"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경험인지를 알 길이 없어서 간단한 임상 테스트를 거치려고합니다. 기꺼이 치료를 받을 지원자도 모집하구요.^^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주제중의 하나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방글라데시를 떠나 있던 지난 7 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기쁨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저희가 대단하지 않은 실력과 보잘것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게 더이상 부끄러움도 아니고 저희가 일을 게을리 해도 되는 변명거리도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저희의 부족함 가운데 맘껏 일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이런 놀라운 일, 주님의 사교에 끼워 주신 이유도 저희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사도바울이 말한 연약함을 자랑한다는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은 알것도 같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희를 너무 편안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별볼일 없는 저희를 통해 무슨 일인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일임을 자랑 할 수 있을것만 같습니다.

저희 말고도 대부분의 외국인 사역자들이 언제 떠나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의 목표는 단순해졌습니다.

환자들이 굳이 외국인 의사를 찾지 않게 되는것,

현지의사가 외국 의사보다 부족한게 전혀 없다고 느끼게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지 의사를 기술적으로 잘 트레이닝 시키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저희의 부족함도 부끄럼없이 드러내고 저희의 우월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유혹도 끝없이 물리치며 서로에게서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참 겸손함이 저희 안에 점점 이루어져가길 소망합니다.

저,신태희는 요즘 매일 치과에 나와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필요했는데 일반적으로 거쳐야하는 복잡한 구매과정을 건너뛰고 얼마전 끝난 커뮤니티 사역에서 남게된 책상을 바로 받게 된겁니다. 드디어 제 오피스, 제 책상에 앉아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책상입니다 !!)

비록 최근 급격히 늘어난 감염자 수 때문에 전국적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재료 구매나 치과 스태프

고용을 위한 인터뷰가 조금은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신기할 정도로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실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스태프집에 방문했다 집 앞의 잭프룻 나무에 열린 정말 작은 잭프룻 열매를 보았습니다. 다 자란 엄청 커다란 열매만 보았던 저로서는 그 열매의 시작이 이토록 작고 연약한 열매라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왼쪽 나무에 열린 작은 잭프룻 열매가 보이시나요?
나중에 오른쪽 사진처럼 커다란 열매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겨자씨 같은 일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맺고 풍성해지는지
눈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의 일들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 현재로는 5 월초 치과개원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원 인터뷰과정 가운데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방글라데시에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다시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에서 다시 열흘 더 연장이
되었는데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계신
분들의 생존이 다시 위협 받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3. 신창은 형제가 없는 7 개월 동안 내과를
맡아 훌륭히 일하고 있는 크리스천 현지
의사가 좋은 리더로 성장하도록 "뒤에서"
잘 돕고, 다른 의사들, 스태프들, 환자들의
영적인 면에 더 맘을 쓰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 매일의 삶 가운데 연약한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를 맘껏 높이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사랑을 드리며,

신태희, 신창은 올림